금융권 가계대출도 옥죈다

9월 광주·전남 126억 그쳐 … 두달새 80% 이상 줄어

리스크 관리 강화 … 신규 대출 억제·만기 연장 불허

리스크관리 강화에 나선 금융권이 가계의 돈줄마저 죄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9월중 광주·전남지역의 총대출은 1천212억원으로 7월(3천148억원), 8월(1천415억원)에 비해 대출 증가폭이 둔화됐다.

특히 가계대출은 7월 672억원에서 8월 177억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9월에는 126억원으로 2개월 사이 80% 이상 줄어들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관련 대출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대출액이 7월에는 515억원이었으나 8월에는 금융권의 압박으로 오히려 159억원이 회수됐고 9월에는 11억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분이 급감한 원인은 금융권이 금융위기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신규대출은 억제하고 만기연장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회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광주은행의 경우 지난 7~9월 사이 신규 가계대출 액수는 월 평균 700억원대에 달했지만 회수한 금액은 7월 487억원에서 8월에는 815억원, 9월에는 694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 가운데 주택대출 회수 금액은 7월 70억원이던 것이 8월 178억원, 9월 165억원, 10월 210억원으로 부동산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의 가계에 대한 돈줄 죄기에다 대출금리 인상, 경기침체로 인한 자영업자 몰락 등이 겹치면서 가계대출 연체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4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조사한 가계대출 연체율을 보면 지난 8월 1.13%로 전월(0.99%)에 비해 0.14%포인트, 전년 동월(1.03%) 대비 0.10%포인트 증가했다. 광주·전남 가계대출 잔액이 11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연체금액은 1천130억원으로 1년만에 100억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금융 위기감을 느낀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이어 가계대출마저 줄이면서 시중에 돈이 마르고 있다"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9월을 고비로 10월부터는 은행들이 서서히 신규대출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올 아파트 건설 물량 급격 줄어

광주 800여 가구 … 작년 10분의 1 수준

전남도 절반 이상 감소

지방 주택경기 침체의 여파로 올 들어 광주·전남 지역의 아파트 건설 물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 주택건설 실적이 정부의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등 향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광주의 주택건설(인허가 기준) 물량은 81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9천137가구)에 비해 91.1%(8천322가구)나 줄어든 것으로, 건설업계의 주택건설 물량이 1년새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

전남도 올해 아파트 건설물량이 4천593가구로, 1년 전(9천970가구)보다 53.9% 줄었다.

광주·전남의 아파트 건설 급감은 주택경기 침체 속에 미분양 적체와 원자재값 급등 등이 맞물리면서 건설업계가 공급을 대거 줄인 결과로 풀이된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올해 전국의 주택건설 실적은 19만5천885가구로, 전년 동기(28만490가구)보다 30.2% 줄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올해 주택건설이 10만53가구로, 전년 동기(13만4천291가구)보다 25.5%(3만4천238가구) 감소했다.

이는 올해 정부 목표인 수도권 30만가구 건설의 33.5% 수준으로, 향후 집값 급등 등 주거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건설 부진은 2~3년 뒤 입주할 신규 주택이 줄어든다는 의미여서 집값 불안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각각 15만가구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9월까지 민간 및 공공부문 건설이 각각 8만8천690가구, 1만1천363가구에 그쳐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 콜센터 건립 '주춤'

시공회사 모기업 부도로 공사 포기

치평동 전용건물 2010년 완공 차질

광주시가 신축을 추진중인 콜센터 전용건물의 시공사가 모기업 부도로 공사를 포기해 건립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7일 광주시도시공사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들어설 콜센터 전용건물의 공동시공사인 대전시 소재 D건설(주)이 지난달 13일 공사 포기각서를 도시공사에 제출했다.

이 회사는 지난달 24일 광주시 소재 S종합건설과 289억원에 콜센터 전용건물 신축공사를 공동 도급한 뒤 선수금 6억5천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모기업인 DH사가 30억원의 어음을 결재하지 못해 지난 3일 최종 부도 처리됨에 따라 공사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콜센터 건립 공동시공사를 재선정해야 하는 등 오는 2010년 준공 예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률상 공동도급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공사가 부도처리돼야 하지만, 현재 시공사의 모기업이 부도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도급사 재선정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자회사인 D건설을 부도업체로 보느냐를 놓고 법률적인 문제를 정리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콜센터 건립 주체인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최종 부도 처리되기 전까지 D건설의 재무 변동상황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도시공사는 지난달 24일 D건설 등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29일 착공식을 가졌지만, 이 회사는 불과 5일 만에 최종 부도처리됐다.

도시공사는 조달청에서 공사발주, 업체 선정작업을 했기 때문에 시공사의 재무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물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다른 시공사가 현장사무소 설치와 공사추진을 위한 인·허가절차를 밟는 과정이고, 본 공사는 이달말께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공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지급된 선수금 6억5천만원도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콜센터 전용건물은 콜센터 1천500석이 입주할 수 있는 건물로,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로 세워질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건조한 피부 촉촉하게 17일 롯데백화점 본점 스킨케어룸 직원들이 건조해지기 쉬운 초겨울 피부를 촉촉하게 관리해주는 마스크팩 등 다양한 보습제들을 시험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보금자리론으론 집 구입 힘들어"

광주 3년 전 비해 구매 가능 주택 비중 8% 줄어

집값 상승 기조로 최근 3년간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주택담보대출)을 통한 '내집 마련'이 크게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광주의 보금자리론 대출자의 주택평균구입비로 마련할 수 있는 아파트의 비중은 전체의 40%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인 지난 2005년 10월(48%)에 비해 구매가능한 주택의 비중이 8% 줄어든 것으로, 집값 상승폭이 대출액 증가폭을 웃돌았음을 의미한다.

광주는 지난달 보금자리론 대출자들의 평균 주택구입비가 7천440만원으로, 3년전(7천100만원)보다 4.8%(340만원) 상승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출액 규모는 같은 기간 집값 상승폭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보금자리론을 통한 구매가능 주택감소의 주된 요인이 됐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3년새 집값이 폭등한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인천은 지난달 보금자리론 대출 평균액(1억3천58만원)으로 구매가 가능한 주택 비중이 17%에 머물렀다. 이는 2005년(42%)에 비해 25%나 줄어든 것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인천에 이어 ▲경기(24%) ▲서울(19%) ▲충남(16%) ▲전북(16%) 등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보금자리론 = 서민들을 위한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 대출상품. 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한 상품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가 이용할 수 있다.

지역 수산물 수도권 판로 확대

전남도, 충청권 업체와 유통협약

전남도가 충청권 수산물 유통회사인 ㈜삼해로와 유통협약을 맺음에 따라 충청지역은 물론 서울·경기 등 수도권 수산물 판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17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정종배 ㈜삼해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산 수산물의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을 위한 유통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삼해로는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활·선어, 패류, 건어물, 수산가공품 등의 수산물 판매를 돕는다.

대전에 위치한 ㈜삼해로는 132개 점포를 보유한 수산물 유통업체로 활·선어와 일반가공수산물 판매장, 회센터, Sea-Food Town 등을 직접 운영해 연간 37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 수산 유통업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道, 내년 재해예산 조기집행

2,200억 중 1,500억 상반기 사용

전남도는 재해위험을 없애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예산 2천219억원 중 70%인 1천5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사업규모는 올해 1천472억원보다 747억원이 증가했으며 사후복구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부 방침이 바뀌고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일선 시군별로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 추진단'을 구성해 올 연말까지 관련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발주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된 기술지원반을 함께 운영해 실시설계와 시공과정에서의 예산낭비, 부실시공 등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